

## 일반논문

# 플라톤의 코라 공간에 대한 포스트구조주의적 접근 절합(articulation)과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의 개념을 중심으로\*

A Post-Structural Approach to Plato's Chora: focussed on the concepts  
of articulation and constitutive outside

이현재\*\*

김스-그레엄은 절대적·상대적 공간개념이 모두 여성의 몸과 공간의 생산적 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간을 '코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코라는 어떤 공간인가?

이에 필자는 우선 코라 공간을 처음으로 언급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이후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나 여성주의자들이 강조해 발전시키는 코라의 내재적 힘이 코라의 구성성 및 운동성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여성주의적·포스트구조주의적 언어이론이 플라톤의 코라가 갖는 힘과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크리스테바의 여성주의적 포스트구조주의적 언어이론에 나타난 코라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데리다 및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론과 연결시키는 가운데, 코라의 내재적 힘이 이질적인 힘들의 '절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코라는 동일성(의미, 본질, 형상)의 '구성적 외부'로 개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필자는 김스-그레엄의 여성주의적 정치경제 지리학에 나타난 코라 공간론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스-그레엄이 말하는 코라는 단순히 대문자 자본주의(동일성, 형상)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용기가 아니라 비자본주의 또는 소문자 자본주의들이 '절합'되어 차이와 지연을 생산하는 '구성적 외부'이다. 따라서 코라 공간으로서의 여성의 몸과 여성의 공간은 동일성의 실현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게임의 공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27)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feminphil@hanmail.net)

이 된다.

주요어: 코라, 공간, 절합, 구성적 외부, 기입의 공간, 차연

## 1. 새롭게 등장한 공간 개념, 코라

기존의 물리학적 철학적 공간이론에서는 두 가지 공간 개념, 즉 절대적 공간 개념과 상대적 공간 개념이 지배적으로 등장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절대적 공간개념을 “모든 물리적 대상의 ‘용기(容器, container)’로서의 공간”으로, 상대적 공간개념을 “물체세계의 저장성(Lagerungsqualität)”(슈뢰르, 2010: 31)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간은 물리적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질적 대상을 담고 있는 텅 빈 용기이거나, 물리적 대상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질적 대상들의 세계가 지니는 위치적 성질들 혹은 물질적 대상들 간의 상대적 관계이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절대적, 상대적 공간에 관계적 공간 개념을 추가하는 가운데 여러 사회 이론들 역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 개념에 따라 세계를 보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가령 행정구역도나 배치 및 위치의 은유를 사용하는 이론들은 절대적 공간개념을, 상황적 지식이나 변위, 시공간 압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 공간 개념을, 매우 통제되기 어려운 힘을 상징하는 카오스 이론이나 심리지리학은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비에 따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는 주된 시공간적 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하비, 2008: 205). 따라서 어떤 공간 개념을 전제하느냐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주의 정치경제 지리학자 김슨-그레엄(J. K. Gibson-Graham) 역시 공간개념이 사회인식 및 사회적 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김슨-그레엄은 기존의 공간 개념, 특히 절대적, 상대적 공간개념 모두가 여성의 몸이나 공간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공간 개념들이 여성이론에 전제될 때, 그것은 여성 공간의 생산성, 잠재성, 가능성을 도외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가령 ‘강간 스크립트’ 담론에서 여성의 몸은 “침략 당하고 채워지고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텅 빈 공간”(김슨-그레엄, 2013: 162)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성의 몸은 오히려 강간에 속수무책인, 여성의 몸을 침범하는 남근에 의해 지배되는 희생자의 위치에 종속되게 된다. 이는 여성의 몸을 자본주의와 결합시켜 설명하는 도사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여성의 몸은 텅 비어 있기보다는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구성되는 “‘상대’ 공간”(165)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여성의 몸과 여성의 영역은 자본주의를 위한 재생산, 양육, 소비의 기능을 하는 종속적인 공간으로만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절대공간으로 이해되건, 상대공간으로 이해되건, 이러한 경우 여성의 몸과 영역은 이를 지배하는 남근이나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것들 간의 관계 안에서 고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의 행위자성(agency)은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김슨-그레엄은 여성의 몸 및 여성 공간의 가능성과 잠재성 그리고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문자 남성에게 의해서만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공간을 물질에 의해서만 형태를 얻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보는 담론의 밖에서 사유”(172)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몸과 여성의 공간을 절대적, 공간적 공간 개념의 밖에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슨-그레엄은 실천적 행위자성을 가능하게 할 대안적 공간 개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공간을 형상화할 때 간간히 사용해왔던 ‘코라(chora)’<sup>1)</sup>에 주목한다. 김슨-그레엄은 레히테(J. Lechte), 그로

츠(E. Grosz),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 등을 인용하는 가운데 코라를 “위상학적 공간의 형식파괴(deformation)”에 가까운,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공간”(170)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내재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고유한 영향력”(168)을 지닌 “가임의 공간, 공기의 공간, 가능성과 중층결정의 공간”(171)이라고 본다. 여기서 코라는 물질에 의해서만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개방성과 차이를 생산하는 것으로써, 여성의 몸과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 공간 개념이 된다.

그렇다면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공간 개념인 ‘코라’는 무엇인가? 김순-그레엄도 잘 알고 있듯, 코라(khōra, 공간)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코라는 무엇인가? 아쉽게도 오늘날 물리학적, 사회학적 공간 개념의 연구자들은 플라톤의 코라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가령 물리학에서의 공간 개념을 집대성한 막스 아머(Max Jammer)는 『공간 개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해석에 의존하여 코라를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이며(아머, 2008: 51~54), 공간사회학을 집대성한 슈뢰르 역시 『공간, 장소, 경계』에서 플라톤을 공간 개념을 설명하는 첫 번째의 방대한 시도를 했던 인물로 제시하고 있으나 코라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코라는 어떻게 형식파괴의 힘, 자체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코라가 이론의 영역에서 다시금 등장한 것은 포스트구조주의나 여성주의에서다. 그렇다면 포스트구조주의나 여성주의는 플라톤의 코라를 어떻게 전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코라는 다른 모든 형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형상에 지배되기보다 그 자체의 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잉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코라는 생산성, 형식파괴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1)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공간 개념으로서의 ‘코라’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코라의 공간성을 강조할 때는 ‘코라 공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코라는 이리가레, 그로츠, 레히테, 크리스테바 등의 여성주의 이론 안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간인 여성의 몸을 비유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김순-그레엄의 정치경제학 안에서의 여성의 몸과 여성 공간을 비유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에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나 여성주의자들이 후에 강조하여 발전시키게 되는 코라의 내재적 힘이 코라의 구성성 및 운동성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여성주의적, 포스트구조주의적 언어이론이 플라톤의 코라가 갖는 힘과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는 크리스테바의 여성주의적 포스트구조주의적 언어이론에 나타난 코라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데리다 및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론과 연결시키는 가운데, 코라의 내재적 힘이 이질적인 힘들의 ‘절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코라는 동일성(의미, 본질, 형상)의 ‘구성적 외부’로 개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필자는 김순-그레엄의 여성주의적 정치경제 지리학에 나타난 코라 공간론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순-그레엄이 말하는 코라는 단순히 대문자 자본주의(동일성, 형상)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용기가 아니라 비자본주의 또는 소문자 자본주의들이 ‘절합’되어 차이와 지연을 생산하는 ‘구성적 외부’이다. 따라서 코라 공간으로서의 여성의 몸과 여성의 공간은 동일성의 실현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차이가 발생하는 가임의 공간이 된다.<sup>2)</sup>

2) 필자는 이미 『“코라(chora)” 공간의 물질성과 사회철학적 확장 가능성』,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에서 크리스테바의 언어이론에 나타난 ‘코라’와 플라톤의 ‘코라’와의 상관성을 밝힌 바 있으며, 『코라(chora)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여성주의적 도시권의 가능성』,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2012에서는 김순-그레엄이 ‘코라’ 개념을 이용해 도시 공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플라톤에서 시작된 코라 공간의 구성성 및 운동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포스트구조주의 및 여성주의와 결합하는 가운데 ‘절합’과 ‘구성적 외부’라는 개념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2. 플라톤의 코라: 공간성, 구성성, 운동성

먼저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코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여기서 플라톤은 존재와 생성 이외에도 세계를 형성하는 제3의 부류로 코라(khōra), 즉 공간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라는 플라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플라톤에 따르면 코라는 “생성의 수용자”이다.

그때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만을 구분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셋째 종류를 명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일체 생성(genesis)의 수용자(hypodochē)인 것으로, 이를테면 유모(tithēnē)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플라톤, 2000: 48c~49a).

여기서 헬라스어 hypodokhē는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임’, ‘접대’, ‘숙소’, ‘용기(容器)’를 의미하며, 신체 기관과 관련해서는 일단 음식을 받아들여 영양을 제공하게 되는 ‘위’ 또는 ‘자궁’을 의미한다”(김영균, 2000: 57). 이런 점에서 코라는 공간성과 관련되어 있다. 코라가 공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플라톤이 코라를 “(자기의) 소멸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성을 갖는 모든 것에 자리(hedra)를 제공하는 것”(플라톤, 2000: 52a~52b)<sup>3)</sup>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수용자로서의 코라는 감각적인 물체도 지성적인 형상도 아니다. 코라는 모든 생성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코라는 변화하지 않는다. 코라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변동도 하게 되고 모양도 다양하게 갖게 되어, 그것들로 인해 그때

3) 역자들에 따르면 헬라스어로 코라는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는 공간 혹은 장소’, ‘지역’, ‘나라’, ‘나라가 차지하는 영토’”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텅 빈 허공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있게 만드는 기반의 의미를 갖는다.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김영균 옮김(과주: 서광사, 2000), 145쪽, 역자주 322) 참고.

마다 다른 것으로”(50c) 나타나지만, 코라는 생성과 달리 “언제나 ‘같은 것’”(50b)이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중의 어떤 것과도 어떤 식으로건 닮은 형태(morphe)를 갖는 일도 결코 없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50b~50c).

이렇듯 코라는 “언제나 존재하는 공간의 종류”(52a)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물체에 형태를 부여하는 “도형(eidos)들과 수(arithmos)들”(53b)과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라는 도형이나 수와 같은 형상을 가진 물체들을 수용하지만 형상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라는 온갖 물체들을 받아들이지만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코라는 “감각적 지각을 동반하지 않는 ‘일종의 서술적 추론(logismos tis nothos)’”(52b)에 의해서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라는 지성의 직관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추론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라 즉 공간은 제3의 부류이다.

그러나 수용자로서의 코라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여성주의자 및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조했던 코라의 내재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플라톤이 코라를 또한 ‘유모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코라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체들을 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모란 영양을 제공하는 자이자, 아이를 인간으로 생성하게 돕는 자이다. 다시 말해서 코라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제공하여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코라의 구성성은 플라톤이 코라를 무취의 액체에 비유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온갖 좋은 향유의 경우에 먼저 시작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고안하듯이, 즉 향기들을 받아들이게 될 액체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무취한 상태로 만

들 듯이 말씀입니다”(50e).

여기서 무취의 액체로 비유되고 있는 코라는 어떤 성질들을 받아들여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질료처럼 보인다. 향유가 무취의 액체로부터(of, from) 구성되듯이 온갖 형태들이 코라로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로 인해 플라톤의 코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 질료(hyle)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곤 하였다(Aristoteles, 1966: 209b; 김영균, 2000: 75). 제1 질료로부터 여타의 질료들이 구성되듯이 코라로부터 물체들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라의 구성성을 질료적인 구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위의 인용 바로 다음에서 코라를 “흙이라거나 공기라고도, 또는 불이나 물이라고도, 또한 이것들의 복합물들이라거나 이것들을 생기게 한 요소적인 것들이라고도 말하지 마시다”(플라톤, 2000: 51a)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슨과 마이어스타인(Luc Brisson and F. Walter Meyerstein)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코라의 구성적 특성을 물질이 아니라 “물질에 근접하는 어떤 것(something approximating)”으로, 즉 “공간적 매질(spatial medium)”(Brisson and Meyerstein, 1995: 22)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코라는 감각적 개별자들이 그 “안(in)”에서 나타나는 공간 혹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감각적 개별자들이 그 “로부터(of)” 만들어지는 “공간적 매질”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코라는 마치 소리를 전하는 공기, 파동을 전달한다고 여겨졌던 에테르와 같은 매질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플라톤 연구자 김영균은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코라를 공간적 매질로 보는 것은 생성의 구성에 코라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코라가 생성 소멸하는 것들에 ‘영양’을 제공하는 가운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영균, 2000: 75). 나아가 김영균은 코라를 공간적 매질로 해석하게 되면, 플라톤이 코라에 내재한다고 보았던 힘, 운동

성 역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코라의 구성적인 힘은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코라가 영양을 제공하고 운동하는 가운데 생성 소멸하는 것들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여기서 필자는 셋째로 플라톤이 코라의 운동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티마이오스』에는 코라가 가진 두 가지 종류의 힘이 등장한다. 우선 코라는 서로 닮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힘을 갖는다. 이는 플라톤이 코라를 “흔들림을 제공하는 기구”(플라톤, 2000: 53a)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플라톤에 따르면 “마치 고리버들 세공의 키나 곡식을 가려내는 일과 관련된 기구들처럼”(52e) “그 자체가 운동을 하게 된 수용자”는 “흔들리게 된 네 가지 부류의 것들 중에서 가장 닮지 않은 것들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고, 가장 닮은 것들은 같은 곳으로 최대한 모이게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이것들은 서로 다른 지역(공간)을 점유하게 된다”(53a).

그러나 플라톤의 코라는 이러한 구분과 배치의 힘 이외에도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결코 닮지 않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dynamēis)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부분에서도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들(힘들)로 인해서 그것이 균형을 잃고서 온갖 방향으로 기우뚱거리며 흔들리게 되는가 하면, 또한 그것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다시 그것들을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52e).

플라톤의 코라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플라톤이 우주의 발생 이전부터 코라에 존재했던 “아난케(필연 anankē)”(47e)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 플라톤은 “필연의 산물”을 “지성(nous)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47e). 플라톤에게 아난케는 “지성이 개입하기 이전의 물질의 상태를 지칭”하는데, 지성에 독립해서 작용하는 이 힘은 우주가 질서를 갖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힘들로써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to tēs plaōmenēs eidos aitias)”(48a)이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코라가 배치나 구분의 힘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과 함께 생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공간으로서의 코라는 형상을 가진 물체들을 수용하지만 이러한 수용자로서의 코라 공간은 수동적이지 않다. 코라는 서로 닮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생성을 구성하며, 이러한 공간적 구성에는 항상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 아난케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여성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코라의 내재적 힘 혹은 형식과괴를 강조할 때 그것은 바로 플라톤이 코라의 구성성과 운동성을 설명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플라톤은 코라를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구성성과 운동성을 갖는 공간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가운데 코라 개념을 전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으로 코라가 모두 해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코라가 물체들을 뒤흔들면서 물체들에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코라는 물체들을 구분하는 힘과 이것을 다시 뒤흔들어 놓는 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힘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에서 크리스테바와 데리다 그리고 라클라우와 무페의 포스트구조주의적 담론이론을 도입하는 가운데 코라 공간에 내재하는 배치의 힘과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선취에서 말하자면, 여성주의적, 포스트구조주의적 언어 이론 안에서 코라는 무의식적 욕동이나 의미 없는 음성과 같은 불규칙한 힘들의 ‘절합’을 통해 의미들을 생산하는 코라-세미오틱이며, 통사론적 배치로서의 생볼력을 구성하면서도 이것에 한계를 부여하는 ‘구성적 외부’이다.

### 3. 코라에 대한 담론이론적 이해: 절합과 구성적 외부

균형 잡치지 않은 힘들로 가득 찬 코라가 생성되는 모든 것에 자리를 제공한다는 플라톤의 명제는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전면화되지 못하였다. 플라톤이 말했듯, 코라는 존재도 생성도, 형상도 모방물도, 존재도 존재자도 아니기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 존재론이나 물리학은 균형 잡치지 않은 힘이나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 아난케 등 동일성을 이탈하는 것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어휘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기존의 의미론 역시 하나의 기표가 특정한 기의를 지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여 있었기 때문에 코라와 같이 의미를 초월하는 기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코라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의식적인 것, 의미화될 수 없는 것, 비합리적인 것, 이질혼성적인 것 등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포스트구조주의 언어이론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장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포스트구조주의 언어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데리다의 언어이론 및 라클라우와 무페의 담론이론을 통해 보충하는 가운데 코라의 균형 잡치지 않은 힘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의미론적인 배치의 힘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인지, 이를 통해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는지 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1) 비표현적 마디들의 절합(articulation)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시적 언어의 혁명』(1974)에서 그동안 형식적 언어이론이 도외시해왔던 다양한 욕동의 차원들과 이동, 압축, 음성, 역양의 차이와 같은 작용들을 언어이론 속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코라에 주목한다(크리스테바, 2000: 23). 크리스테바의 언어이론에 따르면 규범적 사회관계와 담론의 형식에 따르는 언어 양태는 ‘생볼릭(le symbolique)’이며, 주

체의 이질적 에너지와 충동의 방출을 포함하는 언어 양태는 ‘코라-세미오틱(sémiotique)’이다.<sup>4)</sup> 크리스테바는 ‘생볼릭’과 ‘코라-세미오틱’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언어적 양태들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의 생성 과정(procès de la signifiance)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크리스테바가 ‘생볼릭’이라 부르는 것은 푸코가 ‘담론’이라고 했던 것, 라캉이 ‘상징계’라고 불렀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 ‘생볼릭’은 지배적 사회질서와 아버지의 법 그리고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통사론을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생볼릭은 플라톤의 형상, 로고스, 기하학적 질서 등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코라-세미오틱’은 “이동과 압축, 흡수와 거절, 거부와 정지와 같은 언어습득에 있어서 생득적이고 종의 기억에 필수적인 전 조건들로 작용하는 일차과정을 포함한다”(크리스테바, 2000: 31). 가령 그것은 생볼릭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욕동에 의해 추동되는 “음성 또는 신체 근육의 운동성”(27)과 연관되어 있다.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세미오틱의 기능들”(28)이란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서 아이가 표출하게 되는, 아직 의미를 갖지 않는 음성이나 신체적 리듬 등을 일컫는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의 최초의 말 흉내인 ‘옹알이(echolalias)’는 코라-세미오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Kristeva, 1980: 135). 여기서 세미오틱이 코라-세미오틱인 이유는 이 언어적 양태가 플라톤이 말했던 코라의 불균등한 힘, 아난케,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라-세미오틱은 생볼릭 이전의 언어적 요소 혹은 전언어적인 요소들의 생성에 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은 생볼릭이 통사론적으로 기호에 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크리스테바가 ‘생볼릭’을 ‘배치(disposition)’로, ‘코라-세미오틱’을 ‘절합(articulation)’(크리스테바, 2000: 26)<sup>5)</sup>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4) 노엘 맥아피는 이를 상징계와 기호계로 구분하고 전자를 “분명하고 규범적인 의미의 표현”, 후자를 “느낌의 환기.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주체의 에너지와 충동의 방출”로 정리하고 있다. 노엘 맥아피, 이부순 옮김,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도서출판 엘피, 2007), 43쪽.

나타난다. ‘생볼릭’이 ‘이미 표상 영역에 들어가 있고 또 기하학을 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의 현상학적 직관에 호응하는 배치’와 연관되어 있다면, ‘코라-세미오틱’은 ‘움직임과 그 순간적 정지로 구성된 극히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유동적인 절합’(26)과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생볼릭이 통사론적 규칙에 따라 하나의 기호를 정해진 자리에 소속시킨다면, 코라 세미오틱은 불규칙한 욕동의 운동성에 따라 음성이나 신체적 리듬들을 우연적으로 절합한다.

“‘에너지의’ 충전인 동시에 ‘정신적인 요소의’ 표지이기도 한 욕동은, 이처럼 우리가 코라(chora)라고 부르는 것 — 즉 통제된 만큼이나 변화무쌍한 운동성 속에 그러한 욕동과 그 정지(stases)가 형성한 비표현적인 총체 — 을 절합(articulation)한다”(26).

여기서 코라의 내재적 힘은 ‘절합’으로 압축된다. 코라-세미오틱의 절합은 이질적 욕동들에 의해 형성된 비표현적인 마디들을 우연적으로 절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절합’이 무엇인지는 라클라우와 무페(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의 이론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절합’을 ‘우연적인 관계’<sup>6)</sup>로 설명하였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코라-세미오틱의 절합은 비표현적인 마디들을 우연적으로 관계 맺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라클라우와 무페에 따르면 절합적 실천은 그것이 우연성과 연관되어 있는 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요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절합으로서의 ‘사회적 실천은 언제나 새로운 차이의 구성이다’(라클라우와 무페,

5) 김인환은 articulation을 ‘분절’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서 필자는 ‘절합’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6) 라클라우 에르네스토-무페, 상탈, 이승원 옮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휴머니티스, 2013), 194쪽. 이승원은 articulation을 ‘접합’으로 번역하였으나 필자는 ‘절합’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2013: 203).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코라를 ‘차연(différance)’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데리다는 코라를 ‘차연’으로 이해했다. 플라톤에게서 마찬가지로 데리다에게 코라는 그 자체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름’으로 오지만, 그 이름이 오는 순간 그것은 ‘그 이름 이상’이 되며, ‘그 이름의 다른 것’이 된다. 그 이름에는 매번 다른 것들이 절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데리다는 코라를 “타자의 당면을 바로 알리는 타자 자체(Das Andere schlechthin)”(Derrida, 1990: 11)라고 보았다. ‘코라’라는 기표는 어떤 존재의 근원, 어떤 하나의 정체성, 어떤 하나의 형상과도 연관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코라는 모든 생성되는 것에 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것이기도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코라는 모든 생성되는 차이들에 “하나의 자리를 열어주는 자리”(Derrida, 1995: 104)이다. 그 자체의 기원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코라’는 그 안에서 생성되는 것들을 우연적으로 관계시킨다. 다시 말해서 코라는 차이들의 우연적 절합이며, 그러한 절합은 그 어떤 동일성으로도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코라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데리다는 코라를 공간적 차이(differ)이자 시간적 지연(defer)인 ‘차연’과 같다고 본다.<sup>7)</sup> 이는 데리다의 신조어 ‘차연’을 분석해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차연(différance)’은 ‘différence’의 e자리에 a가 우연적으로 절합된 것이며, 이러한 절합을 통해 ‘차연’은 differ의 의미도 defer의 의미도 시간적으로 지연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차연’은 스펠링들의 공간적 차이이자 스펠링들과 연관된 의미들의 시간적 지연을 가리키는, 모든 생성에 자리를 제공하는 자리 이외의 다름이 아니다. 여기서 차연은 코라이며, 코라는 차연이다. 코라는 이질적인 힘들을 우연적으로 절합함으로써 공간적 차이를 낳지만, 그러한 공간적 차이는 정해진 의미를 갖

7) 데리다의 차연은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자크 데리다, 김보현 편역, 『해체』(문예출판사, 2015(1996)), 127~128쪽.

지 않기 때문에 차이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된다. 코라의 절합은 이런 점에서 “‘차이와 지연’의 놀이”(박일준, 2008: 139) 즉 차연이다.

## 2) 담론의 구성적 외부

지금까지 필자는 코라-세미오틱의 절합과 생볼릭의 배치를 구분하는 가운데 양자를 독립적인 언어적 양태인 것처럼 설명해왔다. 그러나 크리스테바에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석적 설명을 위한 방법론이었다. 크리스테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코라-세미오틱의 절합이 코라-세미오틱의 단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서 코라-세미오틱의 절합의 힘은 코라-세미오틱과 생볼릭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화 과정 전반에서 구성적인 역할을 한다.

절합의 구성적인 힘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의미화 과정 전반에 관여한다. 우선 어떤 의미도, 어떤 상징질서도 코라 세미오틱의 단계를 거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라-세미오틱은 의미화 과정에 구성적이다. 아이는 ‘코라 세미오틱’의 절합, 즉 말도 안 되는 음성의 절합으로서의 웅알이 단계를 거쳐야만, 아버지의 상징질서 즉 ‘생볼릭’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라 세미오틱은 생볼릭의 형성 선제 조건이다. 둘째로 코라-세미오틱의 절합은 생볼릭의 배치 과정에도 관여한다. 즉 코라-세미오틱의 절합은 생볼릭의 배치에 항상 함께한다. 크리스테바는 의미 없는 리듬과 음성의 절합 등 ‘코라’의 일차적 기능들이 ‘생볼릭’의 조건이 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미화의 과정은 상징세계의 파괴, 의미의 잉여와 초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생볼릭의 기저에 항상 코라-세미오틱이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는 점에서 생볼릭은 기호와 의미에 항상 동일한 자리를 배치할 수 없다. 생볼릭이 코라-세미오틱과 함께 의미화작용을 수행하는 한, 기호와 의미들은 항상 혹은 필연적으로 다른 자리에 절합될 가능성을 갖는다.

“세미오틱은 정립에 앞서고 의미작용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세미오틱은 주체의 조정에 앞서기 때문이다. 명제 속에서 사유하는 자아에 선행하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미작용과 기호에 이질적인 절합들은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코라 세미오틱이다. 코라 세미오틱은 이산적이고 배치된 상태로 있지만, 하나의 정립으로 구성되어 가는 의미에 의해 통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필자 강조)”(크리스테바, 2000: 39~40).

여기서 우리는 코라-세미오틱의 절합적 힘이 의미화 과정에 전반에서 구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다. 크리스테바에게서 방황하는 원인, 불균등한 힘의 절합은 코라-세미오틱 단계에서뿐 아니라 생볼릭의 배치 과정에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절합이 배치에도 관여한다면 절합과 배치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절합은 오히려 배치를 구성한다. 차이를 구분하는 공간성인 배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러한 것일 뿐이다. 우연의 절합이 배치에 관여하는 한, 절합이 배치를 구성하는 조건인 한, 생볼릭의 배치는 폐쇄적이거나 자기 규정적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항상 의미를 초과하고 전복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테바가 말한 시적 언어의 혁명이다.

배치에 대한 절합의 이러한 구성적 성격은 데리다의 이론을 정치이론으로 전유하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설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크리스테바가 의미화 작용 전반을 절합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듯이, 라클라우와 무페 역시 담론 구조 자체를 “사회관계들을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절합적 실천”(라클라우와 무페, 2013: 176)으로 본다. 그들은 담론 구조가 우연성의 절합적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한, 어떤 담론 구조도 그 자체로 폐쇄적인 총체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담론적 총체성은 “단순하게 주어진 그리고 한계가 정해진 실정성(positivity)의 형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202) 라클라우와 무페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총체성이

절합적 실천과 관계하는 한, “융합되고 자기 규정적인 총체성으로서의 ‘사회’라는 전제는 폐기된다”(203). 라클라우와 무페는 “만약 우연성과 절합이 가능하다면, 이는 그 어떤 담론 구성체도 융합된 총체성이 아니며,”(194) “절합된 요소들의 정체성은 그 절합에 의해 최소한 어느 정도 변형될 수밖에 없다”(196)고 주장한다.

여기서 절합적 실천과 담론적 구조(배치)와의 관계에 집중해 보자. 절합은 구성적으로 배치에 개입해 있지만, 그러한 구성은 완전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연적인 절합은 항상 필연적인 배치(담론적 구조나 사회적 총체성) 안에서, 필연적인 것의 구성 조건으로 존재하며, 그런 점에서 절합은 완전한 내재성도 완전한 외재성도 아니다. 따라서 필연적인 것 역시 완전한 내재성이 아니다. 필연적인 것은 혹은 잠정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연적 절합을 자신의 구성적 조건으로 갖는 한, 궁극적으로 ‘의미의 잉여’에 열려 있게 되며, 그런 점에서 우연성이라는 외부를 내부에 갖는다.

“내재성과 외재성 사이의 해소 불가능한 긴장이 모든 사회적 실천의 조건이다. 즉 필연성은 우연성의 영역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사회적인 것이 구성되는 장소는 바로 완전한 내재성과 완전한 외재성이 모두 불가능한 지형이다. 사회적인 것이 차이들의 고정된 체계의 내재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외재성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203).

여기서 코라 세미오틱의 절합(절합적 실천)은 생볼릭적 배치(사회적 총체성, 담론적 구조)의 구성적 조건이다. 전자는 후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이며, 후자의 한계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후자를 구성하는 데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생볼릭의 내부이지만, 생볼릭의 의미통합에 한계와 전복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부이다. 즉 절합적 실천은 구성의 내부에 위치한 외부라는 것이다.

헨리 스테이튼(Hery Staten)은 데리다의 우연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러한 외부를 ‘구성적 외부’로 명시화한다. 크리스테바에게 의미화가 항상 절합에 노출되어 있고, 라클라우와 무페에게 담론적 구조가 항상 우연적 절합에 노출되어 있듯이, 스테이튼에 따르면 데리다에게 본질과 필연성은 항상 우연성에 노출되어 있다. 가령 데리다에게 기억은 망각이라는 것을 필연적인 조건으로 해서만, 그러한 한계를 통해서만, 그러한 외부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억은 항상 자신의 외부인 망각에 필연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스테이튼은 “데리다가 외부를 그러한(such as) 현상의 구성에 필연적인 것”(Staten, 1986: 16)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우연성이라는 ‘외부’는 본질이라는 ‘내부’의 필연적 구성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의 뚜렷한 경계는 무너진다. 필연적인 것은 그 외부와의 관계를 내부에 가짐으로써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외부를 내부에 가짐으로 인해 항상 정상적 경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성적 외부’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구성하면서도 그것에 한계를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구성적 외부’에서 외부는 무규정적 우연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한 것으로 주어진 종류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질이 당면한(befall) 비본질로서의 우연성이다”(16).

이상에서 필자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언어이론을 도입하는 가운데 코라가 의미화 과정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질적인 힘들의 절합으로, 의미화 과정을 구성하면서도 이에 한계를 부여하는 필연적인 외부, 즉 구성적 외부로 전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플라톤의 코라가 물체들에 영양을 제공하고 물체들을 뒤흔들면서 물체들에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을 의미한다. 즉 코라는 의미 없는 음성과 리듬의 힘을 우연적으로 절합하여 자리를 제공하는 자리이며, 의미와 기호의 통사론적 배치를 구성하면서도 이에 한계를 부여하는 구성적 외부이다. 따라서 코라는 끊임없는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을 생산하는 자리가 된다. 이러한

공간성은 물체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용기 공간 개념으로도, 물체들 간의 위치 관계라는 개념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코라는 절대적 용기 공간과 달리 절합의 구성적인 힘을 통해 차이와 지연을 생산하며, 상대적 관계 공간과 달리 물체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면서도 뒤흔드는 구성적 외부이다.

#### 4. 코라의 경제지리학적 전유: 가임의 공간

마지막으로 필자는 담론이론적 패러다임에서 전유된 코라 개념이 서론에서 제시한 김순-그레엄의 여성주의 정치경제 지리학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다음에서 필자는 김순-그레엄의 코라 공간 개념을 절합과 구성적 외부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치경제 공간을 단순히 자본주의라는 형상을 수용하는 용기가 아니라 비자본주의의 이질적 힘들이 절합되는 구성적 외부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코라 공간은 항상 그 안에 전복과 개방의 행위자성을 갖는 것으로 전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김순-그레엄이 절대적 용기 공간 개념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김순-그레엄에 따르면 기존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간을 주체나 대상이 ‘위치하거나’ ‘점유한’ 텅 빈 용기나 장(場)”(김순-그레엄, 2013: 158) “형상 공간”<sup>8)</sup>으로 파악해왔다. 즉 그들에게 “빈 곳으로서의 절대공간은 ‘물질로 가득 찬 공간’(Kern, 1983: 153)이자 ‘수동적 경기장이며, 대상과 대상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무대’(Messy, 1993: 76)”이다(김순-그레엄, 2013: 168). 그에 따르면 기존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텅 빈 공간이 하나의 형상, 즉 자본주의 경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곤 했다. 가령 그들에게 도

8) 김순-그레엄은 지배적인 제도의 법칙에 의해 통합되는 절대적 공간을 ‘형상 공간’이라고 부른다. 김순-그레엄, 2013: 168.

시공간은 단 하나의 형상, 즉 “대문자 자본주의(Capitalism)”<sup>9)</sup>(70)와 관련하여 규정된다. 용기 공간의 구조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물체의 형상에 의해 수학, 기하학적으로 설명되듯, 한 기표의 의미가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의미 혹은 지배적 통사론의 규칙에 의해 규정되듯, 도시 공간은 대문자 자본주의라는 단 하나의 형상에 의해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에 따르면 도시화가 확산되는 한, 전 지구적 공간은 자본주의 공간이 된다. 자본주의는 모든 공간을 집어삼키고 침범하는 강력한 유일한 힘이 된다. 여기서 공간은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침범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슨-그레엄은 기존 정치경제학자들이 공간을 ‘강간 스크립트’처럼 묘사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강간 스크립트에서 강력한 페니스가 나약한 여성의 몸을 침범하는 것으로 전제되듯 자본주의의 형상은 남근처럼 모든 도시 공간을 침범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간 스크립트에 따르면 강력한 자본주의 논리는 모든 비어있는 공간에 침투해 들어간다. 여기서 공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텅 빈 공간, 자본주의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표로 이해될 뿐이다. 여기서 공간을 지배하는 절대적 질서는 남근이며 자본주의며 여성의 몸이나 도시 공간은 이에 저항할 다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간을 강간을 당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치경제적 공간은 자본주의라는 유일한 형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김슨-그레엄은 “공간을 물질에 의해서만 형태를 얻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보는 담론의 밖에서 사유”(172)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그 자체의 고유한 영향력”(168)을 가진 코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코라 내부의 고유한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김슨-그레엄은 코라를 “대문자 자본주의의 존재와 미래 자본주의들의 되기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즉 “비자본주의들의 불

9) 김슨-그레엄은 경제를 화폐가 교환되는 시장, 임금 노동, 자본주의적 기업과 관련하여만 담론화하는 방식을 ‘대문자 자본주의’로 명명한다.

확정적 잠재력을 위한 장소”로 보며 여기에는 “자본의 흐름에 먹혀버리지 않은 일련의 경제적 실체들”(179)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김슨-그레엄에게 코라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자본주의적 경제적 실체의 힘들로 가득 찬, 그러한 힘들을 통해 자본주의적 경제를 배치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김슨-그레엄은 자본주의적 장소를 탈출하기 위해 도시 공간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이질적인 힘, 또는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식들을 불러오는 데서 시작한다.<sup>10)</sup>

김슨-그레엄에 따르면 코라 공간에는 대안 통화를 사용하고, 물물교환을 하는 대안적 시장들이 있을 뿐 아니라 선물 증정이나 이삭줍기와 같이 시장과 관계없는 교환이 존재한다. 코라 공간에는 임금이 주어지는 노동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품앗이나 현물지급과 같이 대안적인 지불에 의해 보상되는 노동이 존재하며, 가사노동이나 친인척 돌보기와 같이 아예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 노동도 존재한다. 기업도 자본주의적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기업 또는 국영기업은 이윤을 자본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분하며,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적 기업은 내부의 회의를 통해 이윤을 배분한다.<sup>11)</sup> 이로써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코라 공간에는 시장적 교환, 임금노동,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요약될 수 없는 비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경제활동의 50%를 넘어선다는 것이다(15).

필자는 김슨-그레엄이 말하고 있는 코라의 고유한 영향력을 이러한 비자본주의적, 자본주의에 이질적인 힘들의 우연적 절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이 제시하는 비자본주의적 경제형식들은 시장, 임금노동, 자본주의적 기업이라는 대문자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자리

10) 자본주의의 주변을 유령처럼 떠도는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식이나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김슨-그레엄(2013)의 10장 “귀신들린 자본주의: 흑판 위의 유령”을 참고하십시오.

11) 김슨-그레엄, 2013: 16. 김슨-그레엄은 2006판 서문에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다양한 경제활동들을 나열한 표를 제시한다.

에 비시장, 대안시장, 대안적 지불, 부분 노동, 공동체적 기업, 대안적 기업이라는 요소들이 우연적으로 절합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슨-그레엄이 도린 매시(D. Massey)와 앙리 르페브르(H. Lefebvre)를 인용하면서 코라 즉 공간을 퇴적과 증화로 개념화하는 부분에서 더 잘 나타난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상에 실재하는 공간은 항상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중첩성이나 지층을 갖는 장소이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 이래 우리는 한 번도 완전히 텅 빈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공간은 과거의 잔재와 조합되면서 층을 이루고 있는, 따라서 이질적인 내용들로 혼종된 역사적·사회적 장소(place)이다. 따라서 공간은 하나의 정치경제학적 형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힘들에 의해 절합된 다양한 비자본주의적 경제형식들을 갖는다. 코라 공간은 이러한 다양한 힘들이 퇴적되고 증화되어 있는 장소다(168). 여기서 증화와 퇴적은 바로 크리스테바가 말한 절합, 라클라우와 무페가 말한 우연적인 관계 맺기의 결과이다.

나아가 필자는 김슨-그레엄이 코라의 이러한 절합적 힘을 또한 동일성, 필연성의 구성적 외부로 보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김슨-그레엄이 자본주의적 경제 형식이 그 법칙에 따라 공간에 배치될 때에도 거기에는 항상 코라의 절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서 드러난다. 그들에 따르면 어떤 경제적인 형태도 코라를 통해 구성되며, 그런 한 코라의 우연적 절합은 대문자 자본주의라는 필연성에 한계이자 잉여로 작동한다. 가령 도시 공간에 자본주의적 경제양식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해 보자. 그러나 김슨-그레엄에 따르면 이것들은 모두 순수한 대문자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코라의 절합적 힘을 통해 구성되는 한, 자본주의 시장적 교환의 자리에는 비시장적 혹은 대안 시장적 힘들이 우연적으로 절합되곤 하며, 임금노동의 자리에는 대안적 지불이나 무임금의 노동이 절합되기도 한다. 가령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자영업은 시장적 교환의 형태를 갖지만 자영업자의 노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임금노동이 아니다.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자본가이자 노동자인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본주의적 착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생산해 낸 물건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교환되고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에는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이지만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 소유의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비자본주의적 형태와 절합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소문자 자본주의들은 필연성 혹은 본질의 구성적 외부로서의 코라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뒤흔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코라가 동일성, 대문자 자본주의, 형상을 배치·구성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은 김슨-그레엄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간 개념을 도입하는 가운데 공간을 땅이 아니라 공기로 개념화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김슨-그레엄은 공간을 ‘땅’이라기보다 ‘공기’와 같은 것으로서 모든 차원에서 열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그물조직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 개념은 격자로서의 공간, 줄이 그어진 공간을 벗어나 공간을 복잡한 그물망으로 사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러한 공간개념으로 정치경제학을 재구성하면, 도시공간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질적 절합이 가능한 복잡한 그물조직이 된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그 전복적 외부를 내부에 갖고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도시 공간은 대문자 자본주의, 대문자 형상, 대문자 남근중심주의 등과 같은 대문자 정체성을 “무질서, 카오스, 다층성, 이질성, 파열, 탈주”(169)로 분열시킨다.

여기서 코라는 동일성, 대문자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이것들을 뒤흔드는 구성적 외부다. 김슨-그레엄은 레히테(J. Lechte)를 인용하면서 코라를 모든 질서에 “선행하는(preceded)” “순수한 우연의 전조”(170)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코라가 모든 대문자 정체성의 조건이지만, 그것이 고유의 불규칙한 힘들을 가지고 그러한 구성에 참여하는 한, 그것은 “가능성과 중층결정의 공간”(171)이라고 주장한다. 코라는 모든 대문자 정체성에 선행하여 존재하면서 그것을 구성하는 조건이지만 그것들을 이질

성의 힘으로 탈구(displacement)시키기에 모든 공간은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정성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코라는 구성적 외부이다. 코라 공간의 우연적 절합은 대문자 자본주의(필연성, 동일성)의 구성적 조건이면서도 그것의 개방성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외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코라 공간은 다양한 소문자 자본주의, 또는 다양한 비자본주의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김순-그레엄이 코라를 “가임의(pregnant)”(171) 공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김순-그레엄이 대안적 공간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코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의 코라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분석에서 분명해진 것은 플라톤이 코라를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힘들”을 통해 물체들에 자리를 제공하고 물체들의 자리를 뒤흔드는 공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필자는 코라의 이러한 내재적 힘에 대한 강조가 플라톤의 코라를 현대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여성주의적, 포스트구조주의적 담론이론, 특히 크리스테바의 언어 이론에서 전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자는 데리다 및 라클라우와 무페의 설명을 도입하는 가운데 크리스테바의 코라가 차이와 지연을 생산하는 이질적, 우연적 절합의 힘으로, 통사론, 담론 구조, 사회적 총체성, 필연성의 구성적 외부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코라 이해가 김순-그레엄의 정치경제 지리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김순-그레엄에 따르면 코라는 다양한 비자본주의적 경제형식들,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사회적 형태들의 우연적 절합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또한 코라는 대문자 자본주의의 필연성, 법칙, 동일성의 구성적 조건이면서도 그것의 한계로 작동하는 구성

적 외부이기에, 코라 공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문자 자본주의를 탈주하는 다양성이 잉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라 공간이 단순히 수용적 용기나 물체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질적 힘들의 우연적 절합을 통해 물체들을 배치하면서도 이를 뒤흔들어 놓는 구성적 외부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지배적 공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코라 공간은 단순히 지배적 법칙들에 따라 물체를 배치하는 텅 빈 용기가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찬 이질적 힘들을 우연적으로 절합하는 곳이며, 이러한 절합을 통해 지배적 법칙들의 배치를 전복 또는 탈주시키는 구성적 외부이다. 코라 공간은 단순히 물체들 간의 위치성질이 아니라 그 자체에 고유한 힘을 통해 그 위치들을 탈구시킨다. 따라서 코라 공간이라는 개념은 폐쇄적이고 절대적인 언어적, 정치경제학적 구조에 개방성을 장착한다. 어떤 것이 코라 안에서 코라로부터 작동한다는 것은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외부를 필연적으로 코라 내부에 갖는다는 것이다. 공간이 코라로 이해된다는 것은 모든 공간의 탈주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념적 가능성이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라 공간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물리학적 연구 뿐 아니라 사회학적 연구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라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을 때 다양한 사회적 사례 발굴이나 실천을 위한 시각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6년 4월 15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5일

계재확정일: 2016년 6월 9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6월 14일

❖ Abstract

A Post-Structural Approach to Plato's Chora:  
focused on the concepts of articulation and constitutive outside

Hyun-Jae Lee

In this paper, I first analyse Plato's chora(khōra) as the space which offers objects a place while shaking them with its own unbalanced powers. And then, introducing the post-structural language theories of Kristeva, Lacan, Laclau and Mouffe, I explain the chora as the linguistic aspect in which heterogeneous pre-linguistic powers are articulated, and as the constitutive outside which constitutes the signifying process on the one hand and displaces it on the other hand. Finally, applying the concepts of articulation and constitutive outside to the Gibson-Graham's economic geography, I interpret the chora as the place in which the heterogeneous economies of non-capitalistic forms are articulated, and as the constitutive outside which is the constitutive condition of the Capitalism on the one hand and offers it a limit. This conception of chora shows consequently that a space can be understood as a possibility of openness, displacement and *différance*.

Keywords: chora, space, articulation, constitutive outside, pregnant space, *différance*

참고문헌

- 김영균. 2000. 『플라톤에 있어서 생성과 공간(khōra)』. 한국철학회. 『철학』, 62권.
- 데리다, 자크. 2015. 김보현 편역. 『해체』. 문예출판사.
- 라이프니츠, 고트프리트 빌헬름. 배선복 옮김. 2007. 『모나드론 외』. 서울: 책세상.
- 맥아피, 노엘, 이부순 역. 2007.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도서출판 앨피.
- 라클라우, 에르네스토-무페, 상탈. 2013. 이승원 옮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휴머니티스.
- 모이, 토릴. 1994. 임옥화·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 박일준. 2008. 『코라의 이중주, 데리다의 차연과 화이트헤드의 동일성』. 《인문과 학》, 제41집.
- 버틀러, 주디스, 조현준 역. 2006.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 슈뢰르, 마르쿠스. 2010.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배정희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31쪽.
- 아리스토텔레스. 2008.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김진성 역주. 서울: 이제이북스.
- 야머, 막스. 2008. 『공간 개념』. 이경직 옮김. 서울: 나남.
- 이경직. 2006.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타난 공간 개념』. 한국철학회. 『철학』, 제87권.
- 이현재. 2009. 『“코라(chora)” 공간의 물질성과 사회철학적 확장 가능성: 크리스테바의 『시적언어의 혁명』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18호.
- 이현재. 2010. 『지워진 여성의 몸: 코라와 물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집, 5~33쪽.
- \_\_\_\_\_. 2012. 『코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여성주의적 도시권의 가능성: 김순-그래함의 『자본주의의 종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7~34쪽.
- 장경춘. 1999. 『플라톤의 티마이오스(48e-52d)에서 수용자의 정체』. 《서양고전학연구》, 14권 1호.
- 크리스테바, 줄리아, 김인환 옮김. 2000.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 페인, 마이클, 장경렬·이소영·고갑희 옮김. 1999. 『이론읽기/읽기이론』. 한신문화사.
- 플라톤, 박종현·김영균 옮김. 2000. 『티마이오스』. 파주: 서광사.
- 하버, 데이비드, 이동근·박훈태·박준 옮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Aristoteles. 1966. *Physica*. ed. by W. D. Ross, Oxford: Clarendon Press.

- Brisson, Luc and Meyerstein. 1995. F. Walter, *Inventing the Univers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New York.
- Derrida, Jacques. 1990. original 1987. aus dem Französischen von Hans-Dieter Gondek, *Chora*. Wien: Passagen Verlag.
- \_\_\_\_\_. 1995. *On the Name*. ed. Thomas Ditoi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Einstein, Albert. 1960. "Vorwort." in: Max Jammer, *Das Problem des Raumes. Die Entwicklung der Raumtheorien*, XII-XVI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
- Gibson-Graham, J. K. 2003. "Poststructural Interventions." in edited by Eric Sheppard and Trevor J. Barne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Oxford: Blackwell.
- \_\_\_\_\_. 2006. *The End of Capitalism(as we kno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Grosz, Elisabeth. 1995. "Women, Chora, dwelling." in *Postmodern Cities and Space*. ed. S. Watson and K. Gibson, MA: Blackwell, pp. 47~58.
- Kristeva, Julia. 1980.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Oxford: Blackwell.
- \_\_\_\_\_. 1984.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translated by Lé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P.
- \_\_\_\_\_. 1986. *The Kristeva Reader*. ed. by Toril Moi, Columbia University Press.
- Jammer, Max. 1969. *Concepts of Space: The History of Theories of Space in Physics*. Cambridge: Harvard Uni. Press.
- Löw, Martina. 2001. *Raum-soziologie*. Frankfurt: Suhrkamp.
- Marcus, Sharon. 1992. "Fighting Bo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of Rape Prevention." ed. J. Butler and Joan W. Scott.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 Moon, M, E. K. Sedgwick, B. Gianni, and S. Weir. 1994. "Queers in(single-family) space." in *Assemblage*. 24(August), pp. 30~37.
- Plato. 1902. *Timaios* in ed. J. Burnet, *Platonis Opera*. Volum IV, Oxford: Oxford Uni. Press.
- Schroer, Markus. 2006. *Raeume, Orte, Grenzen*. Frankfurt: Suhrkamp.
- Staten, Henry. 1986. *Wittgenstein and Derrida*.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